

기고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진도소방서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용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재 위험 요인 중 하나인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알리고자 한다.

화목보일러는 구조상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기 전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어,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주변 가연물에 쉽게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다. 또 실제로 매년 겨울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들이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첫째, 사용 전 점검하기다. 보일러와 연통에 녹이 슬었거나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 번만 살펴봐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연통 관리하기다. 그늘음은 금방 쌓이기 때문에 가끔씩 청소하고, 필요하면 수리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연통이 지나가는 부분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해 두면 더 안전하다.

셋째, 장작 투입 후 덮개 닫기다. 장작을 넣은 뒤에는 덮개를 꼭 닫아 불티가 밖으로 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보일러 주변 정리하기다. 종이, 목재, 비닐 같은 가연물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주변을 조금만 비워도 화재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다섯째, 재 안전하게 처리하기다. 걸보기엔 식은 것 같아도 속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재는 뚜껑 있는 금속통처럼 타지 않는 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식혀야 한다. 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노은서

미국은 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 세계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으며, 그 영향력은 세계 질서와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으로 작용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동맹국을 대상으로 고관세율 부과와 조지아주 노동자 강제 구금 상태, 대미 투자 문제, 무기 강매, 안보 부담금 인상 강요로 한 해를 시끄럽게 하더니, 2026년 새해 초에 인접 국가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체포하여 기소하는 등 도저히 동맹국으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대국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존재가치 변화는 1947년 트루먼 행정부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에서 찾을 수 있다. 소련 공산주의 확장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에 경제와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이었다. 1949년엔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유럽 국가들과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창설했고, 미국이 강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찰 역할을 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 후 '냉전'이 계속되면서 공산국가 지도자들이 권력 독점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여 21세기 이전에 공산주의가 붕괴했고, 반면 패권국인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수정주의 중국은 2000년대부터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제조업, 무역, 기술 등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경제 강국 미국 리더십에 도전하는 형국이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국제법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교수



관세로 뺨 뜨고 군사력으로 나라 뺏고

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타국의 지도자를 사살하거나 체포하여 국내법에 기소하여 처벌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테러 원흉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바 있으며, 부시 대통령(子) 시절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1983~1989)는 6년 동안 철권 통치하면서 마약 카르텔과의 공조하여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뒤 통수를 쳤다. 미국 법무부는 노리에가를 1988년 그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하여 19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국제사회의 불평등, 부정부패, 인권침해 저항하는 세력을 적절하게 데 앞장서 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1월 3일 미국의 '확고한 결의'라는 군사 작전 명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여 압송했다. 마두로의 마약 밀반입, 부정선거 및 조작 선거 당선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이 나라의 석유를 중국에 넘기는 것을 차단하고, 페트로 달러(Petro Dollar)로 결제하기 위한 명분이 크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 세계는 이러한 강대국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강대국의 폭력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 하고, 중국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국가 이익을 사실상 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의 이러한 행위에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20세기 중후반을 넘어오면서 강대국 간, 무력 사용은 상당 부분 억제하였지만,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중동전쟁 등에 강대국들이 참전하기도 했다. 또 미국이 지정학적 주권의 경계를 넘어 타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간섭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들은 작금의 국제 질서가 강대국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적인 질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평화로운 질서도 아니다. 오히려 국제 질서의 안정이 유지되는 선에서 적절히 폭력에 의한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트럼프 정책이 반대한 다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저급한 행동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유엔 헌장 2조에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

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로지 자국의 이익 편승하여 인접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며 체포 및 가두는 것은 미국의 위상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진 불법적이고 무모한 군사행동"이라며 반발했고, 반면 공화당은 "정당한 생명 보호 작전"이라며 대체로 지지를 표했다. 프랑스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비판한 반면, 이탈리아는 "정당한 공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세계 보편적 시각은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포식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며칠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덴마크는 미국이 동맹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경우, 나토도 끝장을 볼 거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유럽 국가들도 덴마크와 연대를 선언했다.

미국은 국제 질서와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는다면, 전 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가장 위험한 나라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은 인류의 공동된 가치, 자유, 사랑, 존중, 공정성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던 만큼 위대한 나라로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 절대적인 힘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깨지는 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 송 암	발행인·대표이사 정 길 화
편집인 전 광 춘	편집국장 박 선 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년 36,000원

기자수첩

경기도 고양시·광명시새마을회 문제 “공익제보” 사무국장·부녀회장 “새마을회원 기망” 진실공방

전 경기도고양시새마을회 허경남 사무국장 전 고양시새마을운동의 남대현 부장은 모두 고양시 새마을운동에 깊이 관여하며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허경남 국장은 오랜 기간 고양시새마을회에서 사무국장으로서 봉사하고 행정을 담당했고, 이후 새마을중앙회 조직국 사업팀장으로서도 활약하였다. 반면, 남대현 부장은 고양시새마을운동에서 독서문화운동과 지역사회 독서환경 조성에 힘써왔으며, 행사 진행과 의견수렴 등 새마을운동 활동 전반을 이끌었고, 그 후 허경남 고양시새마을회 사무국장 뒤를이여

남대현 부장은 고양시새마을회 사무국장으로서 채용되었다.

2018년 고양시새마을회 제11대 회장 김봉진 씨는 한 직원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사실을 발견했고, 전임 회장이 사회적 기업 운영 중 1억 원이 넘는 임금 횡령 의혹도 제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2019년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새마을회 내부에서 횡령 의혹과 업무 전횡 사례가 발생했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새마을회에 사실 확인 조사를 요구했으나 해당 간부는 영전되었으며 반대로 내부 고발자는 해임되는 등 조직 내 부조리가 심



김준형
기동취재본부장

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표창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양시새마을회를 포함한 경기도새마을회가 보조금 지출 규정을 위반하고, 수익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 관계나 유령회사의와 거래 의혹도 제기되었고, 일부 업체는 감사 시작 후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은폐 의혹도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 12월부터 4개월간 감사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며, 적발 시 환수와 사

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2025년 고양시새마을회는 부녀회장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부녀회장은 고양시 새마을회가 영리 사업을 위한 정관 변경 과정에서 발견한 비리를 국민신문고와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보복성 해임을 당했으나 법원에서 해임 효력이 정지되어 복직되었다.

이후에도 해임과 복직이 반복되는 내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새마을회는 30년 이상 지속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와 횡령, 권력 남용, 무자격 포상 등 다양한 문제로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새마을회와 중앙회는 내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혁 요구에도 불응하거나 오히려 의혹 제기자에 대해 징계하는 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 고양시 새마을회는 내부 비리 폭로와 관련된 해임, 횡령 의혹, 무자격 포상 논란, 그리고 내부 갈등 문제로 장기간 사회적 논란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새마을운동의 본래 취지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 개혁과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새마을회는 지방보조금과 소금 판매 구관사업 등 사무국장과 부녀회장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하여 수많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청 포장지등록 및 판매처 조사외)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여 공문서를 작성·발송한 경우, 관련 기관과 공문서 작성·발송자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서

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여 공문서를 발송한 경우, 작성자 및 관련 기관이 공무원인지 여부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며,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경기도새마을회 사무처장은 고양시·광명시 새마을회 등 민원이 발생한 새마을회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인사이동 등)을 내렸으나 경기도새마을회 노조 지부(5·6명)는 이에 불복하고 노동청에 일명 감질이라는 명목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사무처장의 업무가 일시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중이라 한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